신당 새 대표 '교황식 선출'

합의추대+경선요소 가미…10일 중앙위서 선출

새 대표에 손학규 유력, 정대철측 반발 거셀 듯

대통합민주신당은 전당대회 경선을 거치지 않고 오는 10일 오후 중앙위원회의를 개최, 교황 선출 방식으로 새로운 대표를 뽑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도권 초·재선과 386그룹, 일부 중진들의 지지를 받아온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경선을 요구했던 정대철 상임고문과 추미애 전 의원, 일부 초선의원들은 합의추대는 비민주적 방법이며 총선 필패의 지름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경선과 중앙위원회 선출 등의 대표 선출 방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 중앙위 선출안을 찬성 200명, 반대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구체적 대표 선출 방식을 기립 표결, '교황 선출 방식'을 찬성 181명, 반대 29명, 기권 51명으로 통과시켰다.

중앙위원회의에서의 교황 선출 방식은 사실상 변형된 합의추대 방식이라는 점에서 당내 중진들이 선호했던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정대철 상임고문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그러나 새 대표 선출 방안은 확정됐지만 내부 갈등은 오히려 더 고조되는 분위기여서 오는 10일 중앙위에서의 진통은 여전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당대회 경선을 주장했던 정대철 고문은 "당 지도부가 며칠 전부터 분위기를 합의추대 방향으로 몰고갔다"고 비판했고 추미애 전 의원도 "급조된 중앙위원회에서 표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여기에 사실상 합의 추대된 대표와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공천 혁명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손 전 지사가 당 대표로 선출되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 따라 신당 내 각 계파들과 지역별 안배를 통해 최고위원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공천혁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당의 전면적 쇄신을 주장해온 전남지역 모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손학규 대표가 합의추대되면 무슨 힘으로 공천 혁명을 이룰 수 있겠느냐"며 "계파별·지역별 나눠먹기 공천으로는 총선 전망이 암울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일 중앙위원회의에서 새 대표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공천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쉽게 봉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신당 내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교황 선출 방식'이란 무작위로 후보를 1명씩 적어낸 뒤, 상위 2~3명을 대상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하는 방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역 현안 예산확대 총대 맸다

광주 북갑 출마 의사 표명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북갑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거물급 인사인데다, 신당 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현역을 제치고 공천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정치권과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260조 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의 쓰임새를 정하고 미래 사업을 계획하며, 298개 공공기관의 경영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같은 지위를 활용, 전국을 아우르는 '파워인맥'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원한다면'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장 장관은 이와 관련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남은 10년 만에 야당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실무형 인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기획예산부처 근무 경력이 광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또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1975년 행시에 합격한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17년여동안 경제기획원 예산관리과장, 기획예산처 총무과장, 예산실장 등을 거쳐 온 자신의 경력을 이번 총선에서 상대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장 장관이 기획예산부처에 근무하면서 지난 10여 년 간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을 막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는 점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막 시작될 때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으로 근무했던 장 장관은 정부 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올해 5조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는데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최근엔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을 유치하는데 앞장섰던 일,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후보지로 광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분위기를 유도해 갔던 일 등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장 장관은 "다음달 5일께 공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계획"이라며 "일단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DJ 목장의 결투?

'사면 복권' 한화갑·박지원 나란히 목포서 출마 희망

지난 연말 사면·복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월 총선에서 목포 출마를 동시에 희망하고 나서 실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중국에서 귀국한 한화갑 전 대표는 최근 활발한 대외 활동을 보이며 총선에서 목포 출마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무안·신안)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에게 사실상 양보했다는 점에서 DJ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출마가 그다지 무리한 행보가 아니라는 계산이다.

또한, 목포 이외에는 뚜렷한 정치적 연고가 있는 지역구가 없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로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출마설이 거론되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도 최근 목포 출마 의사를 나타내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DJ의 복심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출마가 정치적 연착륙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목포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우리에게도 질서가 있고, 선배가 있다"면서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지역구 문제 등에 대해 조율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는 "대선 이전에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장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통합의 형식은 있었지만 이름만 바꿨고 DNA는 그대로인 상태"라며 총선 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장했다.

여기에 전윤철 감사원장의 목포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목포대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정치적 타협점이 도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박상천 "총선 연합공천 검토"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대통합민주신당과 18대 총선에서의 연합공천론을 제기, 눈길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의 연합공천 제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7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나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등 향후 총선에서 연합공천을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 또는 이회창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신당은 우리(중도개혁노선)와 다른 노선이라고 보는 게 대다수"라며 "그쪽과의 통합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갑 전 대표의 공동대표 영입설과 관련, "비(非) 호남권, 특히 수도권을 의식해 새로운 공동대표를 영입하겠다는 구상"이라며 "한 전 대표는 공동대표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풍향계

심재민 前 행정부시장 등 '출판 기념회'

주승용·최인기·김홍업 의원 등 '의정 보고회'

발표만 거창 '용두사미' 市의회 조례안 빈축

○…심재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7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콜럼버스 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사진〉

심 전 부시장은 2천여 명의 지인들이 몰린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제목의 자전 에세이를 소개.

심 전 부시장은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 경력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광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며 출마의사를 피력.

○…대통합민주신당 채일병 의원은 7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손학규 전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땅끝에서 희망을 보라'는 책 출판 기념회를 개최.

채 의원은 출판 기념회에서 "해남·진도가 해양으로 나아가는 출발지이자 들어오는 첫 땅으로서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미래의 희망을 건져 올릴 보고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개.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0일부터 의정 활동 보고회가 금지되면서 기간 내 치르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봇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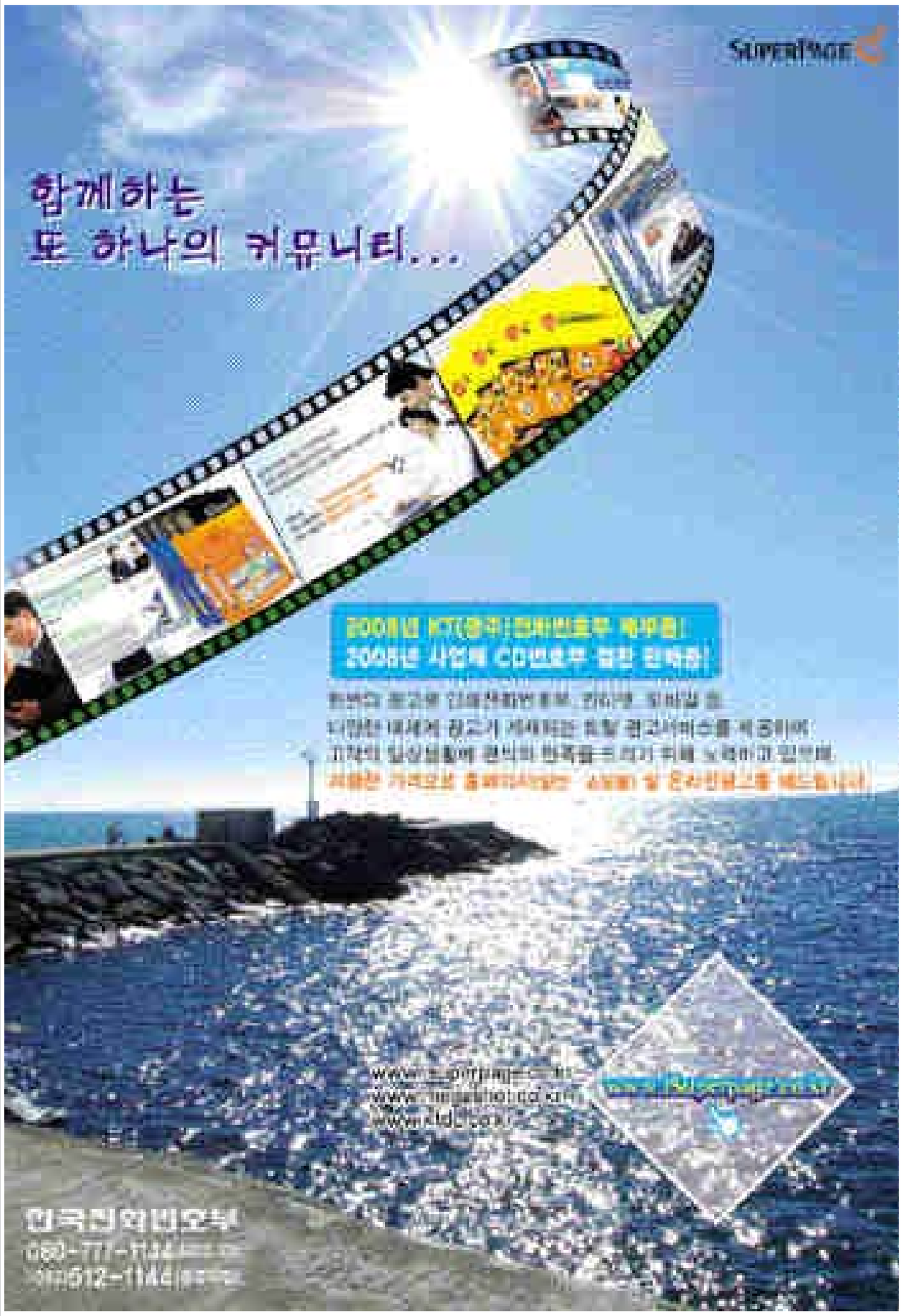
대통합민주신당 주승용 의원은 7일 여수시청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비롯, 4년간의 국회 활동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고 김홍업 의원도 이날 신안군 흑산면사무소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상황 등을 보고.

앞서 최인기(민주) 의원도 지난 5일 의정보고회를 갖고 18대 국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 나주·화순 선거구가 화순·장흥, 나주·함평 등으로 분리될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내가 선거구 획정 위원"이라며 "나주·화순 선거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눈길.

○…법무부가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일정 횟수를 넘는 불법 시위나 파업을 주도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의회가 추진했던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 처리 여부를 놓고 관심.

시의회도 지난해 폭력·불법 시위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여지껏 계류중이라는 것.

조례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과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주민의 권리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의원들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뒤 폐기, 수정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1년 째 낮잠.

일부에서는 구체적 고민 없이 인기 영합주의적 발상으로 거창하게 발표한 뒤 발의했다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며 빈축.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사진=위직량기자 jrwi@